

기고

겨울철 전기화재,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예방하자

겨울철은 난방기기 사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기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다. 실내 활동이 늘고 난방장치, 열선, 전기장판 등 전열기기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주택과 상가, 축사 등 생활공간 곳곳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겨울철 특성상 전기화재는 초기 연소속도가 빠르고 연기량이 많아 대피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철 전기화재의 대부분은 과부하, 과열, 접촉불량이라는 공통된 원인에서 비롯된다.

전열기구를 한 멀티탭에 여러 개 동시에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 접히거나 눌린 전선·전기장판으로 인한 과열, 오래된 전선 피복 손상, 차단기·배전반 내부 먼지로 인한 누전 등은 대표적인 위험요소다. 특히 열선의 결침, 묵은 먼지, 느슨해진 전선 접촉처를 눈에 잘 띄지 않는 위험은 더욱 치명적이다.

전기화재는 전문 장비나 복잡한 점검 없이도 일상 속 작은 확인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전기히터는 반드시 전용 콘센트에 단독으로 사용하고, 장시간 작동 시 간헐적으로 켜다 켜 주며 과열을 방지해야 한다. 전기장판 위에는 이불이나 방석 등을 걸쳐 덮지 말고, 장판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둘 경우 내부 열이 갇혀 발화 위험이 높아진다. 또 열선은 결침·눌림 없는 '직선형 설치'가 원칙이며, 오래된 멀티탭이나 콘센트는 3~5년 주기 교체로 안전하다.

전기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험을 줄이는 생활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를 뽑기▲멀티탭에 전열기구 2대 이상 연결 금지▲피복 손상 전선은 즉시 교체▲타는 냄새·스파크 등 이상징후 발견 시 즉시 전원 차단▲취침 전 난방기기 전원 OFF 확인

▲누전차단기는 월 1회 시험 버튼으로 점검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화재를 미연에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 장치이다.

전기화재는 화재 확산과 연기 발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기화재에는 물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분말소화기나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적합하다. 가정이나 업소에서는 소화기 1대, 감지기 1개 이상 설치가 필수이며, 실제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법은 가족·직원이 모두 숙지해야 한다. 또한 "경보음 울림 → 전원 차단 → 119 신고" 기본 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연습해 두면 만일의 상황에서 침착한 대처가 가능하다.

전기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대부분은 작은 부주의 하나로 시작되는 예방 가능한 사고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위해 오늘 하루, 콘센트 하나, 스위치 하나부터 점검해 보자. 우리의 작은 실천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위승빈

조선시대 '옥봉(玉峯)'이라는 호(號)가 같고, 동시대 살았던 두 분이 있다. 한 분은 옥봉 백광훈(白光勳) 선생으로서 장흥 출신, 젊어서 박순, 노수신 두 홍유(鴻儒)로부터 수학했다. 명나라 사신을 감탄하게 할 만큼 시적 재능이 뛰어났으며, 이산해, 최립 등과 더불어 '조선 팔문장(八文章)'이란 칭호를 받은 걸사(傑士)이다. 또 한 분은 옥봉 이숙원(李淑媛) 여류 시인이다. 일명 이옥봉(李玉峰)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여류 시인이라면 보통 황진이, 허난설헌, 신사임당, 이옥봉 4명을 꼽는다. 황진이와 허난설헌, 신사임당은 잘 알려진 반면, 이옥봉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다.

옥봉은 아버지가 옥천 군수 이봉(李逢)의 첩 시녀로 태어나 어려서 영특하고 특히 글재주가 뛰어나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숙원의 '옥봉(玉峯)'이라는 호도 아버지가 지어줬다. 옥봉은 17세에 첫 혼례를 치렀지만, 남편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요절한 까닭에 친정집으로 돌아와 독수공방하며 습자에 전념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다닌 시회(詩會)에서 운강 조원(趙瑗)을 만나 소개한다. 조원은 그녀의 글재주에 반해 결혼을 결심하면서 옥봉에게 앞으로 글을 짓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결혼했다.

운강은 선조 56년인 1564년 진사시에 장원급제해 1575년 정언(正言)이 됐으나 당쟁 혁파 주장으로 좌천되어 이조 좌랑과 괴산·삼척·성주 등 군수로 외직을 돌다 1593년 승지에 오른 인물이며, 당시 이옥봉 선생과 비견할만한 인물이다.

운강은 옥봉의 글솜씨를 자랑스럽게 여겨 친구들과의 시회(詩會) 자리에 동

칼럼

이동환 AOU대학교 전 교수



억압된 사회의 굴레 속에서 피어난 이옥봉의 시(詩)

석시켜 시 습작하면서 이름이 주위에 알려지게 된다. 행복한 부부생활은 그치지 않지 않았다.

경기도 고양에 살던 이웃 여자의 남편이 '소도둑'으로 관아에 잡혀가자, 그녀는 옥봉에게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서를 부탁했다. 옥봉은 이 여인이 몹시 딱하게 여겨 소장을 다음과 같이 써주었다.

爲人訟冤(위인송원)

洗面盆爲鏡(세면분위경) 세숫대야로 거울을 삼고 梳頭水作油(유두수작유) 빗물도 기름 삼아 머리를 빗네 妾身非織女(첩신비직녀) 첩의 몸이 직녀가 아닐진대 郎豈是牽牛(낭기시견우) 어찌 남편이 견우가 될까요?

위 시는 옥봉이 '견우와 직녀'의 설화를 인용해 '내가 직녀(베 짜는 여자)가 아닌데, 남편이 어찌 견우(소몰이)가 되겠느냐'라는 해학적 청원이었다. 파주목 운

국형에게 전달된 옥봉의 문장 '위인송원(爲人訟冤)'은 절묘했다.

결국 이 청원서가 화제가 되면서 옥봉이 쓴 글이라는 신분이 노출됐다. 운강은 옥봉이 '송사'에 관여했다 하여 약속대로 옥봉을 내쫓았다. 그녀에게 한(恨) 서린 마음의 병을 얻어 평생을 회한으로 살면서 운명 직전 명자 '몽혼(夢魂)'을 남겼다. 그녀는 이 시를 지으며 조원을 그리워했다.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그 와중에 30대 후반의 나이로 죽었는데, 죽은 후에도 신화를 남겼다. 그가 죽기 전 마지막 지은 시 '몽혼(夢魂)'이다.

近來安否問如何(근래안부문여하) 요사이 안부를 묻노니 어떠하시나요? 月到紗窓妾恨多(월도紗窓妾恨多) 달 비친紗窓(紗窓)에 저의 한이 많습니다. 若使夢魂行有跡(약사몽혼행유적) 꿈 속의 낮에게 자취를 남기게 한다면 門前石路半成沙(문전석로반성사) 문 앞의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걸.

위 시에서 "만약 나의 꿈속 낮에게 자취를 남기게 한다면 문 앞의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걸" 이 말은 "얼마나 임 생각을 많이 했으면 돌이 모래가 될까"라는 명구가 애절하면서도 기막힌 절창이다.

이수광이 『지봉유설』에 따르면 그녀는 죽을 때 습작했던 시를 운몽에 감은 채 바다에 던져졌다. 절강성 태수가 바다에 시신이 떠오른 것을 발견하여 이를 건져서 살펴보니 "해동조선국 승지 조원의 부실 이옥봉"이라 적혀 있었다. 시가 너무 좋아 시집을 만들었다.

그로부터 40년 후 조원의 아들 조희일(趙希逸)이 명나라 사신으로 갔을 때 명나라 관리가 '이옥봉'에 대해서 어느나고 물었다. 조희일 사신은 "그녀가 할아버지 첩이었으나 생사를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조선으로 돌아올 때 그 시집 『열조시집(列朝詩集)』을 가지고 와서, 그제야 조선에서도 이옥봉의 시가 인정받았고, 그 후 후손에 의해 『가림세고(嘉林世稿)』 문집이 나왔다.

다만 조선시대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붓을 들고 시를 쓸 줄 안다는 이유로 억압된 사회의 굴레 속에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야 했던 시대, 그녀는 양반 집안 자손이면서 첩의 소생이라는 이유로 조원의 첩이 됐고, 탁월한 재주를 가졌음에도 체인 발휘를 제한당하며, 눈치 보며 억눌러 살았다. 타인을 돕다가 오히려 평탄한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지만, 끝까지 방옥같은 시와 지조로 사랑과 한(恨)을 달래며 애절한 삶을 마감했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오늘의 운세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음력 9월 28일)

Grid of daily fortune tellings for various zodiac signs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with corresponding icons and text.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email, phone numbers, and address.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 Expressway 50th Anniversary' featuring a hand holding a map of Korea, with logos for EX and 50th anniversary.